

환경위기와 문학의 대응*

— 중국 생태시의 성장과 의미

백정숙**

【목 차】

1. 머리말
2. 중국 생태시의 성장
3. 위기 인식과 비판적 참여의식
4.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모색
5. 중국 생태시 성장의 의미와 가능성-결론에 대신하며

【초록】

이 글은 중국 ‘생태시’의 성장과정과 창작 현황을 고찰하고, 나아가 21세기에 들어 최악의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 사회에서 ‘생태시’가 내포하고 있는 ‘환경과 개발’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인간과 자연’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지향을 살펴보고자 한 시도이다.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중국이 보여준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의 이면에는 경제성장의 속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자연환경파괴와 오염이 확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의 생태시 창작은 80년대 중반 극소수 시인의 작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 하나의 창작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본고는 주요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생태시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 참여의식과 비판적 특징,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모색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키워드】 생태시, 환경과 문학, 중국 생태시, 위젠, 화하이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1501)

** 동아대학교 중국어학과 조교수 (baekjs@dau.ac.kr)

1. 머리말

환경오염과 생태 위기의 문제는 우리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일대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지구적 이상기후 현상은 모호한 위기감과는 차원이 다른 실재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도 상관없이 반복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가 국정과제로 거론될 만큼 심각한데, 중국발 대기 오염원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중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 상당히 뜨겁다. 사실 중국의 환경위기는 이웃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이다. 대기오염 외에도 중국의 수질오염, 댐 건설, 자원의 소비 등의 문제가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탓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새로운 환경정책은 세계 각국의 경제상황에 파동을 일으킨다.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인의 선택이 지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¹⁾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이다.

현재의 중국 환경위기는 개혁개방의 빛과 그림자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이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가난한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는 슬로건을 내건 이래로 개발과 성장은 중국사회에서 모든 것에 우선되는 최고의 이상이 되었고,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에서 환경문제는 ‘선오염 후처리’ 방식으로 유보되었다. 1979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고 80년대 환경보호정책이 수립되었지만 유명무실하여 “자원을 낭비하고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메커니즘은 거의 없었다. 규정이 발표되면 이를 우회하였다.”²⁾ 그렇게 중국은 큰 30년 간 연평균 9%이상의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동시에 ‘세계 최대 오염물질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³⁾. 21세기에 들어선 이후로 중국사회는 줄곧 심각한 대기오염, 수질악화, 토양오염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사막화와 홍수, 지진 등 수 차례 대규모 자연재해를 겪어야 했다. 환경오염을 대가로 개발과 성장을 취한 무서운 후과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몇 년 간 환경위기에 대한 중국정부와 대중의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내에서도 환경문제는 인류 미래를 위협하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발지상주의와 무분별한 소비관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2015년 1월 新환경보호법의 발효와 함께 중국 정부가 보여준 강력한 처벌과 규제는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 환경문제가 중국 사회발전에 얼마나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를 역설한다.⁴⁾ 또한 2015년 2월 전직 CCTV 기자 차이징

1) 주디스 샤피로, 『중국의 환경 문제』, 아연출판부, 2017, p.30.

2) 샤피로에 따르면 현대 중국의 환경문제는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으로 심화되었으나 그 원형은 마오쩌둥 시기에 비롯된 중국식 사회주의 가치체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마오쩌둥 시대에는 사유재산과 개인의 부가 혐오되어 개별 시민들이 환경에 피해를 입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과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에서 보여준 자연에 대한 엄격한 인간중심적 가치와 과학적 지식에 대한 경멸, 지식의 억압이라는 유산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현대 중국의 환경문제 악화를 가속화 시켰다는 것이다. 주디스 샤피로, 『중국의 환경 문제』, 아연출판부, 2017, p.261.

3) 2007년에 세계은행은 이미 오염으로 인한 중국의 환경비용이 전체 GDP의 5.8%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조나단 와츠, 『중국 없는 세계』, 랜덤하우스, 2011, p.184.

4) 2015년 1월 新환경보호법이 발효되면서 중국 정부는 관련부서에 강력한 단속권을 부여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법규 시행 6개월 동안 9,300개의 공장을 폐쇄, 740명의 책임자를

(柴靜)이 제작·발표한 다큐멘터리 <돔 지붕 아래(Under the Dome)>⁵⁾가 보여준 파급력이 환경문제에 대한 중국 대중의 높은 관심을 증명한 바 있다.

환경위기에 대한 인식은 생태문학의 출현과 성장으로 이어진다.⁶⁾ 중국의 경우 이른바 환경위기에 대한 문학의 대응적 모색으로서 ‘생태시’⁷⁾ 창작이 구체화된 것은 90년대 중반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며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 ‘생태시’의 성장은 중국내의 ‘환경과 개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생태시’는 소설이나 보고문학 장르에 비해서 그 성장이 늦은 편이지만⁸⁾ 2000년대 이후 그 창작의 양과 질 두 측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생태시’의 성장과정과 배경, 창작 현황을 고찰하고, 나아가 21세기에 들어 최악의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 사회에서 ‘생태시’가 내포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새로운 지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생태시는 분명한 사회적 문제인식과 비판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실 문제를 시로 표현하는 것은 중국 당대시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지만 당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는 것은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바, 중국 당대시에서 현실 비판적 성격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힘들다. 특히 그것이 정치현실과 직결된 문제라면 더욱 그러하다. 개혁개방 이후 사회문제, 즉 무분별한 개발주의, 급격한 경제개혁이 낳은 지역격차, 소득격차, 환경오염, 노동인권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문학 작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생태시’는 생태파괴의 근본 원인을 탐색하는 문학으로, 본질적으로 인류문명발전의 어두운 면에 다가가고자 한다. 때문에 일부 작품은 인류문명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개발지상주의와 인간중심주의적 난개발, 도를 넘어선 소비문화 등 현실 문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중국 당대시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경향으로,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문제가 될 것이다. 그에 앞서 국내에서 중국의 생태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해졌다. 광배성, 『환경선진국 변신을 꿈꾸는 중국 — 중국의 환경정책변화 및 대응방향』, 『POSRI이슈리포트』, 포스코경영연구원, 2016, p.95.

- 5) 중국의 대기오염 실태와 원인에 대한 탐사보도 형식의 다큐멘터리로 차이징이 자비를 들여 독립 제작한 것이다. 발표 이후 첫 48시간 만에 2억 뷰 이상을 달성하고, 시나웨이보에는 2억 8,000만 건 이상의 관련 게시물이 발표되었다. 전국 각 지역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정책 입안자 및 과학자들의 의견과 연구내용을 망라하고 있어 많은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무엇보다 이 필름의 제작이 막 태어난 딸의 건강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반향을 일으켰다.
- 6) 1866년 에른스트 헤켈이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제정한 이후로 이는 생태철학, 생태정치학, 생태문학 등등 사회인문분야로 확대되었다. 환경이나 생태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작품을 쓰게 된 것은 독일의 경우 대략 1950년대 이후이며,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90년대부터 생태문학이 문학담론의 한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홍문표, 『한국 생태시의 과제』, 『한국문예비평연구』, 8호, 2001, pp.217-248 참조.
- 7) ‘생태시’라는 개념은 1980년 독일의 마이어 타슈(P.C. Mayer-Tasch)의 논문 「생태시는 정치적 문화의 기록물」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현재 중국문단의 관련된 문학 담론과 창작에서는 주로 ‘생태시’, ‘환경시’, ‘녹색시’, ‘생명시’, ‘생태환경시’, ‘문명비판시’등의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각 용어들에 대한 개념의 차이와 견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생태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 8) 소설과 보고문학에서 생태주의적 창작은 80년대 중반부터 구체적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吳景明, 『生態批評視野中的20世紀中國文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4 참조.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에 우선 중국 생태시의 성장과정과 배경을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2. 중국 생태시의 성장

중국내 ‘생태시’ 비평가와 연구자들은 고전 ‘산수전원시’나 고대철학의 ‘천인합일(天人合一)’ 관념에서 중국 생태시의 뿌리를 찾는다. 그것이 ‘생태시’의 성장에 전통적 토대가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태시’는 고전 ‘산수전원시’처럼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자연’을 시인의 내재적 정감을 표현하는 ‘전달체’로 삼아 비유와 상징의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과 인간의 상호영향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산수전원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진다.”⁹⁾ 다시 말해서 ‘생태시’는 “생태주의적 관점, 생태윤리적 사상 기반이 그 전제”가 된다. 그것은 “공업화시대의 정신적 산물이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새롭게 구성해내는 것을 창작 사상의 기점이자 표현의 중점으로 삼는다.”¹⁰⁾

중국에 서양의 생태학사조가 유입된 것은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공업화가 막 시작되었던 80년대로,¹¹⁾ 일부 학자들은 이때부터 중국의 생태시 창작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¹²⁾ 80년대는 중국 문단에 가장 다양한 시파가 산발적으로 출현했던 시기로,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시가 일부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는 중국 문단의 중견 작가 위젠(于堅)의 80년대 작품 「고산(高山, 1984)」, 「저 사람 강가에 서서(那人站在河岸, 1985)」, 「남고원(南高原, 1986)」, 「작품89호(作品89号, 1988)」 등이다. 위젠은 “원난(雲南)의 말로 원난을 노래한 첫 번째 사람임을 자처”¹³⁾하는 시인으로, 고향 원난의 자연은 줄곧 그의 주요한 시적 대상이 되었다. 그는 80년대 중반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시로 표현하고 있다.

신화와 공주가 가득한 땅/ 바람이 일평생 열매 백로 나비 그리고 금빛 꿀벌이/ 가득 수놓인
초록 치마를 입는 땅/ 달빛 아래 고운 사슴 가죽을 걸치는 땅/ 남고원 사랑이 깃든 민가/ 대자

9) 吳景明, 『生態批評視野中的20世紀中國文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4, p.320. 吳景明의 저서는 5.4시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중국문학을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고찰한 결과물로, 중국내 생태문학 창작에 관한 비교적 완전한 연구 결과이다.

10) 吳景明, 위의 책, p.321.

11) 80년대 徐芳의 「人和自然關係的藝術思考」(『文藝評論』, 1985年 第1期), 曹文軒의 『中西比較詩學』(北京大學出版社, 1988) 등의 논문과 저서는 ‘생태문학’ 혹은 ‘생태학적 비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서술의 관점은 분명히 생태이론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吳景明, 위의 책, pp.10-12.

12) 田皓의 「20世紀80年代以來中國生態詩歌發展論」은 80년대를 중국 생태시 창작의 ‘맹아기’라 분석하며, 우징밍의 「中國當代生態詩歌簡論」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를 중국 생태시 창작의 ‘발생기’로 분류하고 있다. 田皓, 「20世紀80年代以來中國生態詩歌發展論」, 『湘潭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7年 第2期, pp.84-88. 吳景明, 「中國當代生態詩歌簡論」, 『文藝爭鳴』, 2007年 第4期, pp.111-116 참조.

13) 我自命是第一个用云南话歌颂你那个人. 于堅, 「텐츠를 애도하며(哀滇池)」, 『于堅의詩』, 人民文學出版社, 2006, p.111.

연의 깊은 곳에서 젊은 철학이 태어나고/ 영원의 美가 잠드는/ 남고원 남고원/(중략) 그날엔 내 너의 붉은 땅 위에 잠자리라/ 깨어났을 때 내게 이미 초록 잎이 자라나 있겠지¹⁴⁾

저 사람 강가에 서서/ 사랑을 속삭인다/ 약취가 진동하는 강물/ 바다로 흘러들고/ 도시에서 기어 나온/ 검은 연기/ 대륙 곳곳으로 뻗어간다/ 저 사람의 사랑/ 일생일대의 첫사랑이/ 바로 이 냄새나는 강에서 시작된다/ (중략) 그는 학창시절 읽었던 연애시를 떠올려 본다/ 19세기의 사랑도 이 강 위를 흘렀다/ 강에는 원앙이 하늘에는 흰 구름이/ 녹음아래 삶의 조각배가 쉬었다 가는/ 그 옛날 사랑은 바다에 다다랐을까/ 그 시절 연애시는 거짓이 되었다¹⁵⁾

위젠에게 원난의 자연은 온갖 “신화”와 “사랑의 민가”와 “젊은 철학”을 배태하는 성스러운 곳이자 그가 태어나고 또 언젠가 잠들어야 할 곳이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원난에도 이미 “약취”와 “연기”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 옛날 삶의 안식처가 되었던 강물은 이제 “거짓”이 되고, 오염된 강물이 누군가의 “첫사랑”의 배경이 된다. 80년대 중후반에 창작된 이 시들은 모두 원난 자연의 신성함과 함께 공업화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위젠의 시는 중국 생태시의 성장이 80년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당시는 서구 생태학사조가 막 유입되어 전혀 체계를 갖추지 않은 단계였고 사회적 영향력도 매우 미미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의 등장은 서구 생태학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중국 내에서 ‘자각적 의미’의 ‘생태시’의 성장이 본격화 된 것은 9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90년대에 생태학이 이론적 체계를 갖추면서 ‘문학과 환경’, ‘생태문학’, ‘생태학적 비평’이 문학사조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위젠 외에도 자이용밍(翟永明), 리송타오(李松濤), 셴웨이(沈苇) 등 시인이 주체적 생태의식을 담은 일부 작품으로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

우리는 때로 독소를 먹기도 하고/ 쉿늑을 먹기도 하고/ DDVP를 먹기도 한다/ 우리 입가에 흐르는/ 공업의 저주// 무엇으로 아이를 키울까? 아이가 서기 시작하고/ 키가 1미터 50이 되었을 즈음/ 그 아이는 이미 천여가지 세균과/ 저급한 섬유 백근을 먹고/ 모래먼지 10킬로, 공업 매연 1톤을 마셨을텐데/ 만약 여자아이라면/ 립스틱도 1파운드쯤 먹어야겠지¹⁶⁾

자이용밍의 「무엇으로 아이를 키울까(拿什麼來關愛嬰兒)」는 그 특유의 여성주의적 시각과

14) 长满神话和公主的土地啊/ 风一辈子都穿着绿色的筒裙/ 绣满水果白鹭蝴蝶和金黄的蜜蜂/ 月光下大地披着美丽的鹿皮/ 南高原的爱情栖息在民歌中/ 年轻的哲学来自大自然深处/ 永恒之美在时间中湮没/ 南高原南高原/ (중략)那一天我在你的红土中睡去/ 醒来时我已长出绿叶. 于堅, 「南高原」, 『人民文學』, 1986年 第4期.

15) 那人站在河岸/那人在恋爱时光/臭烘烘的河流/流向大海的河流/一条黑烟/从城市里爬出/爬向大陆边边/爬进蔚蓝的大海/那人的爱情/一生一次的初恋/就在这臭烘烘的河上开始/(중략)他想起中学时代读过的情诗/十九世纪的爱情也在这河上流过/河上有鸳鸯 天上有白云/生活之舟栖息在树荫下/那古老的爱情不知漂到海了没有/那些情歌却变得虚伪……. 于堅, 「那人站在河岸」, 『一枚穿過天空的釘子』, 雲南人民出版社, 2004.

16) 有时候 我们吃一些毒素/ 吃一些铁锈/ 也吃一些敌敌畏/ 我们的嘴边流动着/ 一些工业的符咒/ 我们拿什么来关爱婴儿/ 当他站起身来/ 当他长到 1米零 5高/ 他已吃掉一千种细菌/ 一百斤粗制纤维/ 10公斤重的灰沙入鼻/ 一吨的工业烟雾/ 如果是女孩 她还得/ 吃掉一磅口红. 翟永明, 「拿什麼來關愛嬰兒」, 『終於使我周轉不靈』, 江蘇文藝出版社, 2000.

공업화의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잘 어우러진 작품으로 자이용밍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시이기도 하다. 엄마의 마음으로 환경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는 90년대 말 중국의 상황에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1998년에는 중국 대륙의 첫 번째 생태환경 주제의 개인 시집 장톈(江天)의 『楚人忧天』(内蒙古人民出版社)이 출판되었다. 위젠이나 자이용밍 등의 경우 ‘생태시’를 창작한다는 구체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라면, 장톈의 경우는 이와 달랐다. 장톈은 제지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환경운동에 종사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1992년부터 계속해서 생태환경 관련 작품과 평론을 발표한 바 있다. 2002년 그는 두 번째 생태환경시집 『지구의 아픔(地球的痛)』(中國環境科學出版社)을 출판하였다. 그의 시는 작품성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중국 생태시의 성장에 있어서 주제적 실험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중반 중국 ‘생태시’의 발전은 무엇보다 환경오염문제가 본격적으로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된 것과 가장 연관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중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국가전략의 기본방침으로 설정하였고 각종 정책을 제정하였다.¹⁷⁾ 이를 기점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강화되었다. 환경 NGO가 등장하고¹⁸⁾ 환경오염 해결을 촉구하는 집단시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¹⁹⁾ 한편으로 여러 매체나 각 연구 분야에서 ‘생태’라는 용어가 빈번히 출현하여 주류 담론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생태의식과 환경보호를 기본 취지로 하는 간행물이 잇달아 창간되었으며²⁰⁾ 여러 신문사와 문예지가 다양한 형식의 ‘생태시’ 창작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 예로 1999년 중국의 대표적 시 간행물 『詩刊』은 ‘대지의 노래’라는 주제로 생태시 원고를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이후로도 ‘토양과 미래’, ‘녹색지구’ 등 다양한 환경주제 문학창작활동을 주도한 바 있다.²¹⁾ 이로써 생태시를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독자들이 생태시를 접할 기회도 확대된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확실히 생태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²²⁾

17) 원동욱의 「중국 환경문제에 대한 재인식-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딜레마(2006)」에 따르면 중국은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나름대로의 환경보호정책을 갖추어가며 선진국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련법을 확립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보였다. 『환경정책연구』, 5권 1호, 2006, pp.59-60, pp.59-60 참조.

18) 1994년 학생조직을 포함해 9개의 환경 NGO가 있었으며, 1996년에는 28개로 증가하였다. 이후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73개로 증가하였다. 전형권, 『중국의 환경운동과 거버넌스』, 한국학술정보, 2010, pp.110-111 참조.

19) 주디스 샤피로의 『중국의 환경 문제』에 의하면 중국의 집단환경사건의 발생 건수는 1996년 이후 매년 29%씩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20% 증가하였다. 주디스 샤피로, 『중국의 환경 문제』, p.39.

20) 『綠葉』, 『生態文學』, 『中國綠色時報』, 『人與生物圈』, 『人與自然』, 『森林與人類』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관해서는 張艳梅·吳景明, 「近二十年中國生態文學發展概觀」, 『山東理工大學學報』, 第23卷 第2期, 2007.03, p.13 참조.

21) 1999년, 詩刊社와 中國國土資源報社가 연합하여 개최한 활동으로 이 활동은 이후 제11회 UN국제과학과 평화주간 공헌상을 받기도 했다.

22) 텐하오는 이러한 배경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자각적 생태시 창작이 번영기를 맞았다고 주장한다. 田皓, 「20世紀80年代以來中國生態詩歌發展論」, 『湘潭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7年 第2期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생태시는 뚜렷한 창작흐름을 형성하며 문단 내에서 새로운 문학담론으로 주목받게 된다. 화하이(華海), 황리하이(黃禮孩), 야스(啞石), 셴허(沈河) 등 시인이 다수의 생태시를 창작하였으며, 리샤오뤄(李小洛), 루예(路也), 바이렌춘(白連春), 루웨이핑(盧衛平), 탕궈(唐果), 쉬룬(徐潤), 레이디(雷笛) 등의 시에서도 생태주의적 창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식적으로 생태시 창작에 주력하는 시인도 출현하게 되는데, 광둥(廣東)의 시인 화하이(華海)가 그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80년대에 시 창작을 시작한 그는 2002년을 전후로 생태시 창작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창작경향의 변화에 대해서 화하이는 “첫째 환경오염이 심각해졌다는 현실적 이유에서였다. 특히 2002-2003년 중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스(SARS) 사건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생태 위기와 환경재난의 내재적 근원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둘째는 중년에 접어든 자신의 창작이 공공사회에 개입해야 한다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생각이 시에 반영된 것”²³⁾이라 설명한다. 이후 그는 생태시 창작과 비평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화하이는 중국내 생태시 창작을 수집하는 작업에도 몰두하였다. 2005년 3월부터는 자신이 주관하는 청위안일보(淸遠日報)에 생태시 전문칼럼을 만들어 생태문학과 생태윤리에 관한 글을 소개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12월 수집한 전국 각지의 생태시 작품을 엮어 시평론집『當代生態詩歌』(作家出版社)를 출판하기에 이른다. 이후 생태시 창작에 뜻을 둔 시인들이 청위안에 모여들면서 화하이를 중심으로 ‘청위안 시인그룹’²⁴⁾이 형성되어 청위안시는 “중국 생태시 탐색의 발상지”라 불리기도 한다. 생태문에 비평가 왕뤄(王諾) 교수는 그들의 활동으로 생태시에 대한 관심이 창작계와 학계는 물론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빗대어 “청위안 현상”이라 명명하기도 했다.²⁵⁾ 이들은 자각적으로 생태시를 창작하고 나아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생태시 창작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생태시 창작을 활성화 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히 주목할 만하다. 특히 화하이는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10년이 넘도록 변함없이 성실한 태도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이후 중국 생태시의 발전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인이다.

2000년대 이후의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주제 문화행사가 매우 빈번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환경정책이 강화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인식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성 행사로, 대부분 지방정부와 해당 지역 작가협회가 연합하여 개최한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신환경보호법 시행과 함께 광둥성(廣東省)에서 ‘광둥환경문화제’를 개최하여 ‘신환경법 배우기’ 퀴즈대회와 함께 환경보고문학 대회를 실시했는데, 이 역시 광둥성 환경보호청과 광둥성 작가협회가 연합 주최한 것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생태시’ 창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9년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임업도시 이춘(伊春)에서는 ‘녹색이춘-홍송배(紅松杯)’라는 주제로 시 창작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춘은 홍송 원시림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홍송을 주제로 시 창작 대회를

참조.

23) 華海, 「生態詩歌的產生和發展現況」, 『長城』, 2009年 第2期, p.65.

24) ‘청위안 시인그룹’에는 화하이 외에도 沈河, 唐德亮, 成春, 黃海鳳, 李偽新, 劉順濤 등의 시인이 포함된다.

25) 王諾, 「保護海蜆的小海」, 『讀書』, 2006年 6輯, p.163.

연 것이다. 이러한 행사에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시인들이 참여한다. 이 같은 관방 주도의 문학창작은 중국 당대문학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일면이기도 하다. 사회적 필요에 따라 중국 정부는 여론 주도과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작가협회와 같은 관방 문학단체와 연합하여 문단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같은 중국 문단의 상황을 생각할 때, 2000년대 이후 중국 생태시의 성장에 있어서 환경정책의 강화나 사회적 요구, 관방 문학단체의 주도 등의 영향은 고려해야 할 배경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중국 문단에서 생태시의 성장은 분명 반가운 일이나 그 예술적 의미와 완성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이 사실인데, 그러한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시 평론가 천중이(陳仲義)는 이에 대해서 “대다수 생태시가 ‘위기고발+격정호소’라는 흔한 모식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오랜 창작 관습과 사회적 주문, 이념의 주도, 단기적 공리 촉진 등의 이유로 시가 또 다시 하나의 사상 운반체가 되어버려 시적 가치보다는 생태적 의미가 훨씬 커져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²⁶⁾고 지적한다. 중국 문단 내에서도 생태시가 시의 본질을 떠나 환경문제를 고발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선전하는 계몽주의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문학이 다시 이념의 도구가 되는 시대로 되돌아갈 일말의 가능성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은 것이다.

요컨대 중국내 생태시 창작은 80년대 중반 극소수 시인의 작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90년대를 거치면서 확대되고 2000년대 이후 뚜렷한 하나의 창작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생태시는 21세기 위기를 맞은 중국 시단에 “새로운 시적 체제, 형식 개혁의 좋은 계기”²⁷⁾라 평가받으며, 문학의 현실참여라는 점에서 “시대의 양지와 책임의 표현”²⁸⁾이라 환영받기도 한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작품과 작가는 소수이고, 대부분의 생태시가 작가의 여러 창작 경향의 일면이거나 일시적 감오의 표현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으로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창작한 경우 계몽주의적 경향이 시의 본질을 압도하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이제 막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여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 한계 역시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중국 생태시의 창작경향을 규범화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며, 그보다는 비교적 일관된 창작경향을 보이고 있는 작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시도라 생각된다. 다음 두 장에서는 주요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사회 참여의식과 비판적 특징,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모색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위기 인식과 비판적 참여의식

중국 생태시 창작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과 고발을 내세운 시로 관찰된다. 리송타오의 장시 「종말을 거부하다(拒絕末日)」는 중국 생태시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1991년 제1회 전국환경우수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리송타오의 생태시 대표작으로 꼽힌다. 모두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장시로 제목이 시사

26) 陳仲義, 「生態詩歌寫作的現狀與問題」, 『文學與文化』, 2010年 第2期, pp.71-74.

27) 陳仲義, 「生態詩歌寫作的現狀與問題」, p.74.

28) 田皓, 「20世紀80年代以來中國生態詩歌發展論」, p.84.

하는 바와 같이 ‘목시록’에 가깝다.

대지만큼 거대한 악행, 땅의 노여움을 샀고/ 하늘만큼 큰 탐욕, 하늘을 분노케 하였으니/ 만
신창이가 되어버린 지구/ 하늘에는 온통 증오의 구름이 짙게 깔리었다/ 재난과도 같은 행동이
재난을 만들고/ 파괴적 활동이 파멸을 이끌었다²⁹⁾

눈앞에는 온통 상처투성이가/ 귀가엔 가득한 신음소리/ 배은망덕한 자손들이/ 최후의 생존
지마저 잃었네!/ 마지막 설 곳마저 잃었네!³⁰⁾

시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천지를 분노케 한 인간의 “파괴적” 행위들, “증오의 구름”과 함께 파멸에 이른 세상, “탐욕”으로 “최후의 생존지”를 잃은 인류는 곧 종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다. 시인은 수자원 고갈과 사막화를 거론하며 “물은 소매를 뿌리치고” 영원히 “떠나는 방식으로” 원망을 토로한다고 표현하였다. 이제 “물을 잃은 인간은 울고 싶어도 눈물을 흘릴 수 없다.”³¹⁾ 뒤늦은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 시는 1997년 제1회 루쉰문학상에도 선정되었다. 세기말 환경문제를 인류 존망의 위기로 인식하는 문제의식과 시인의 격정적이고도 엄숙한 태도가 시대 분위기에 부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루쉰문학상은 중국작가협회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하고 최종 승인하는 중국의 대표적 문학상인 만큼 이는 생태시 창작에 대한 기성 문단의 주목, 격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리승타오의 「종말을 거부하다」는 90년대 중반 생태시 창작의 발전에 일정한 의미를 기여한 셈이다. 하지만 환경우수문학상을 통해서 발표된 작품인 만큼 뚜렷한 목적지향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생태시에 있어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과 적극적 비판은 중요한 창작의 기저가 된다. 스스로 ‘생태시인’으로 나선 화하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체불명의 분진이 떨어진다/ 시간 오후 5시 50분/ 장소 시청사 옆/ 분진이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도 나무도 시커멓게 변해버렸다/ 행인의 얼굴도 이유 없이 검게 변했다/ 검은
분진은 그렇게/ 지척의 정부 형상까지 무시해버렸다/ 코를 찌르는 냄새와 함께/ 건물 안 내가
쓰고 있는 시구 위에도/ 입자가 내려앉는다/ (중략)머리 위 구름이/ 내 얼굴 위로 빗방울을 흘
뿌린다/ 그건 얼마나 낭만적인 일이었던가/ 정체불명의 분진 그것은 어쩌면/ 지금 열리고 있는
정부회의를 향해/ 그의 신분과 호적에 대한 연구와 설명을 요구하는 공개적 호소가 아닌지// 분
진 정체불명의 분진이/ 평범한 공무원 시인의 눈앞에 떨어진다³²⁾

29) 地大的恶行触怒了地/ 天大的贪欲惹恼了天/ 地球已千疮百孔/ 天空已恶云密布/ 灾难性的行为造成灾难 / 毁灭性的活动导致毁灭. 李松濤, 「拒絕末日—元殇」, 『拒絕末日』, 春風文藝出版社, 1996.

30) 瘡满目 呻吟盈耳?/ 一群混账子孙/ 几乎丧失了——/ 最后的生养之地!/ 最后的立足之地! 李松濤, 「拒絕末日—瘡痍遍地」, 『拒絕末日』, 春風文藝出版社, 1996.

31) 水以拂袖而去的方式/ 发泄着怨气/ 水以泛滥成灾的形式/ 释放着怒气/, 没有水的滋润/ 世人欲哭无泪. 李松濤, 「拒絕末日——贫血败血并发症」, 『拒絕末日』, 春風文藝出版社, 1996.

32) 一阵来历不明的粉尘落下来/ 时间 下午5点50分/ 地点 市政府大楼旁/ 粉尘落下来 只一会儿功夫/ 路黑了 树木黑了/ 行人的脸也莫名其妙地黑了/ 黑的粉尘 就这样无视/ 近在咫尺的政府形象/ 带着呛鼻的气味落下来/ 甚至把一些颗粒/ 也撒到大楼里我正在书写的诗句中你头上的云/ 把雨洒在我的脸上/ 那是曾经浪漫的事/ 来历不明的粉尘 似乎公然在申请/ 正在召开的一次政府会议/ 对它的身份和户籍进行研究和听证. 華海, 「來歷不明的粉塵」, 華海生態的 BLOG, <http://blog.sina.com.cn/huahaishengtai>, 2007.08.18.

시는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분진”이 떨어지는 상황을 기록하듯 담담하게 전달하고 있다. 분진은 금세 “나무”와 “행인의 얼굴”을 검게 만든다. “분진”은 그의 “시구” 위에도 내려 앉는다. 그가 체험하고 있는 현실이 곧 그의 시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고 있어 시인이 살고 있는 광둥성 어느 도시의 현실인 듯 긴장감 있게 전달된다. 더욱 절묘한 것은 “장소”이다. 화하이는 광둥성 렌저우(連州)시위원회 공무원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³³⁾ 시에서도 이러한 신분 노출을 꺼리지 않았다. 시인이자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화하이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모른척할 수 없었다. “정체불명의 분진”, 그것이 어디로부터 왜 생겨났는지, 그 “호적에 대한 연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그 비판적 시선은 “정부 형상”과 “정부회의”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중국에서 현직 공무원이 쓴 시는 자칫 계몽주의적인 캠페인성 글쓰기로 간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비판의 태도는 그의 신분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혹을 누그러뜨리고 오히려 환경문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둔다. 실제로 화하이는 생태시 창작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학적 행위이며, 사상 축적의 결과이자 동시에 현실비판에 대한 개입”³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러한 생각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비 온 뒤의 우울 물의 거친 숨소리/ 은밀한 통증을 흘뿌린다/ 동굴 입구를 지키는 귀뚜라미
작은 몸을/ 지켜낸 그는 생명을 다해/ 낮은 소리로 가장 짧은 노래를 부른다/ 산다는 것은 고난
에 대한 유머가 아닌지// 폭발과 다음 폭발 사이 그 틈/ 창문을 열면 욕망이 시퍼런 얼굴을 마
주한다/ 나는 숨을 쉬고 싶다 소리를 지르고 싶다// 테라스 월계꽃이 일제히 소리를 지른다³⁵⁾

파티, 꽃, 유흥을 비껴서/ 내 느린 걸음이 삶의 한 끝에 멈추어선다/ 사실, 나는 토끼따다/ 내
마음은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붉은 눈에/ 큰 귀를 가진 욕망의 토끼/ (중략) 나는 이것
이 도시의/ 또 다른 가능성이라 믿는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나물 한 접시를 먹으며/ 자
전거를 타고/ 면직물 옷을 입는 것으로/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음을/ 이 세상은 너무 빨리 달
리고 있으니// 스스로를 느리게 만들고/ 삶의 한 모퉁이에 기대어 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바람
이 오가는 길을 들여다보면/ 비로소 알게 된다 내게 필요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세상
이 줄 수 있는 것 또한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³⁶⁾

33) 화하이는 현재 시위원회 위원이자 선전부장직을 유지하면서 샤먼대학(廈門大學) 생태문학연구단 겸직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생태시 창작과 비평, 이론 연구 활동도 왕성하게 진행 중이다.

34) 華海, 「關於生態詩歌的對話之二」, 華海生態的 BLOG, <http://blog.sina.com.cn/huahaishengtai>, 2008.08.11.

35) 雨後的忧伤 水的喘息/ 开始飄散隱秘的疼痛/ 我看到守在洞穴門口的那只蝓蝓 守着/ 小小的肉體 用生命/ 低唱一首最短的歌/ 活着 是對苦難的幽默/ 在一場爆發與另一場爆發的間隙/ 打開窗戶 欲望碰上烏青的臉/ 我想呼吸 想喊叫/ 阳台上所有的月季都在喊叫. 華海, 「악을 쓰는 월계꽃(喊叫的月季)」, 華海生態的 BLOG, <http://blog.sina.com.cn/huahaishengtai>, 2006.12.06.

36) 绕过盛宴·鲜花·狂欢/ 我漫步在生活的边上/ 其实, 我是属兔子的/ 我的心跟许多人一样/ 也是一只红眼睛的兔子/ 大耳朵的欲望兔子/ (중략) 我相信 这是/ 都市的另一种可能/ 喝一杯温开水/ 吃一碟山野菜/ 骑一辆自行车/ 穿一件棉布衣/ 还让时间稍微慢一点/ 这个世界跑得太快// 让自己慢下来/ 靠在生活的边上/ 我定一定神/ 看清了风的来路和去路/ 开始明白自己需要的不是太多/ 世界能给予的也不是太多 華海, 「스스로를 느리게 만들다(讓自己慢下來)」, 華海生態的 BLOG, <http://blog.sina.com.cn/huahaishengtai>

동식물의 사유와 생존방식을 상상함으로써 만물과 대화하고 자연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화하이의 생태시 창작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 특징이다. 시인은 거센 비를 피해 생명을 지킨 “귀뚜라미”가 되고, 질식할 것 같은 대기오염 속에서 악을 쓰는 “월계꽃”이 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자연물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이끌어내고 인간과 다른 자연물이 자연공동체 안에서 평등한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게 한다. 경제성장의 혜택으로 삶은 윤택해졌다. “파티, 꽃, 유흥”이 일상이 되고 물질적 “욕망”은 소비를 자극한다. 팽창된 소비는 다시 경제 발전을 이끈다. 성장 지상주의와 함께 중국사회에 팽배해진 물질만능과 과시적 소비풍조는 현재의 생태위기를 가속화했다. 시인은 자신 역시 “욕망”의 존재임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와 “스스로를 느리게 만들고” 자연의 방식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따뜻한 물 한잔”, “나물 한 접시”의 절제, “자전거”와 “면직물 옷”을 선택하는 생활방식을 제안한다. 이처럼 화하이의 시는 환경위기에 대한 인식이 사고와 생활방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층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생태시의 보편적 지향이기도 하며,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자연과 상호관계를 깨뜨리려는 사회적 원인을 비판하고 개혁할 것을 독자에게 호소하는 저항적 성격은 생태시를 참여문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³⁷⁾가 된다.

생태시의 비판적 참여의식에 있어서 위젠은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이다. 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환경주제의 시를 창작해오고 있는 그는 현재 중국 생태시 창작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공업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중략)/ 내게는 옥수수의 마음이 있고/ 새와 대지와 씨앗의 마음 맑고 광활한 마음이 있다/이 진실한 감정은 감출 수 없는 것 설령 이 시대 그것이 때 지난 화제라 할지라도/ (중략)나는 늘 가을은 영원한 것이라고 믿었다 만세의 가을이라고 가을 만세라고/ 또 다시 가을이 왔다 그러나 장수한 것은 나였다 喪章을 찬 것은 나였다/ 세상은 매일 달라지고 가을 이 잊혀져버린 뒤안에서/ 쓰레기와 폐품 굴뚝과 공장 사이/ 나는 끊임없이 지껄이는 밀고자이나 이미 사지가 찢겨버린 가을을 알릴 길이 없다/ 내가 보았던 세상에 그토록 찬란한 계절이 있었음을 형용할 길이 없다³⁸⁾

위젠의 1988년 작 「작품89호(作品89號)」는 개혁개방의 변화가 막 밀어닥친 소도시의 풍경이다. 농촌은 점차 공업화, 도시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 시인은 자신에게 “옥수수의 마음”, “새와 대지와 씨앗의 마음”이 있는 것은 모두 가을이라는 “찬란한 계절” 덕분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공업시대”가 시작되고 난 뒤 “세상은 매일 달라”졌다. 가을이면 “씨앗”의 생명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었을 그 들판에 “굴뚝”과 “공장”이 들어서면서 가을의 의미는 퇴색되어간다.

i, 2008-08-11.

37) 송용구, 『생태시와 생태사상』, 현대서정사, 2016, p.122.

38) 已成为工业时代的开端 忧心忡忡/ (중략) 我有玉米的心/ 鸟的心 土地和种子的心 我有晴朗而辽阔的心 / 无法掩饰这真实的感情 哪怕在这个时代 关于它的话题早已过时/ (중략) 我一向以为 秋天是永恒的 万岁千秋 千秋万岁/ 又是秋天的好时光 长寿的却是我 披黑纱的却是我/ 世界日新月异 在秋天 在这一被遗忘的后院/ 在垃圾 废品 烟囱和大工厂的缝隙之间/ 我象一个唠唠叨叨的告密者 既无法叫人相信秋天已被肢解. 于堅, 「作品89號」, 『于堅的詩』, p.6.

80년대 후반 위젠은 이미 시 쓰기를 통해서 도시화, 공업화의 폐해에 대해,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잃어가는 “진실한” 무언가에 대해 “끊임없이 지껄이는 밀고자”가 되기를 자처하였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1997년작 「덴츠를 애도하며(哀滇池)」에서 “일상생활이 곧 죄가 되는 이 시대/ 누가 이 재래시장 하수도를 고발할 수 있는가?”³⁹⁾라는 자문에서 “밀고자” 이자 동시에 “죄인”이 되고 마는 시인의 갈등이 드러난다. 윈난성 최대의 호수 “덴츠(滇池)”는 윈난의 대지를 살찌운 젖줄이라 불리었던 곳이다. 위젠이 “만물이 起源을 얻는” 생명의 근원이자 “내 詩의 基地, 내 美學의 根源”이라 찬양했던 만큼, 덴츠는 위젠의 창작세계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년대 말 쿤밍과 주변 도시에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덴츠는 오염되기 시작했다. 90년대에 이미 심각한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나 문제시되었으며, 현재까지 오염정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호수 가운데 가장 심각한 오염단계에 머물러 있다. 쿤밍의 아름다운 자연을 상징하던 이 호수는 이제 중국 환경오염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⁴⁰⁾ 위젠의 「덴츠를 애도하며(哀滇池)」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분노에 찬 절규이다. 시인은 “오염된 것은 덴츠만이 아니었”으며, “줄곧 너의 충실한 찬양이 되고자 자임했던 나”마저 “위선자”가 되었음에 절규한다. 끝으로 “詩로 너를 위한 祠堂을 만들고/ 너의 祠堂에서 나의 죄를 씻겠다”고 고백한다. 유년시절 언제나 그를 품어주던 투명하고 신비로웠던 호수가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는 현실은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젠은 오랫동안 “덴츠” 곁의 충실한 “밀고자”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

국가체육훈련기지가/ 덴츠 옆에 들어섰다/ 호수 물은 이미 오염되어/ 아무도 찾지 않는 쓰레기장이 되었으니/ 모든 운동 기구들은/ 죽음을 향해/ 거액의 투자의 방향을 향해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기를 한다/ 깊게 들이 쉬고 뛰어오른다 근육을 움직여/ 땀뭍히키키를 한다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공들은 하나씩/ 상태를 알 수 없는 하늘을 향해 날아간다⁴¹⁾

2000년대 중반 위젠의 시 「350」에서 덴츠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생명의 근원이었던 호수는 오염된 ‘쓰레기장’이 되어 방치되고, 그 옆에는 ‘국가체육훈련기지’가 들어

39) 在这个时代 日常生活几乎就等于罪行 谁会对一个菜市场的下水道提出指控? 于坚, 「哀滇池」, 『于坚的诗』, pp.106-112.

40) 덴츠 일대는 공업단지이자 중국 최대 화훼생산기지로 유명하다. 80년대 말부터 쿤밍시 정부는 지역 경제의 발전을 내세워 각종 공해산업을 덴츠 일대에 받아들였다. 시멘트, 비료, 화학, 금속 등 다양한 산업 공장들이 덴츠를 둘러쌌다. 현재 덴츠의 오염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때문에 쿤밍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집단 시위가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5월에도 쿤밍에서는 거대 석유 회사가 주도하는 신규 정유공장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었다. 이 시위는 쿤밍 시장이 주민 대다수의 동의가 없으면 프로젝트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나서야 끝이 났다. 주디스 샤피로, 『중국의 환경 문제』, p.39 참조.

41) 国家体育训练基地/ 建造在滇池旁边/ 湖泊的水体已经污染/ 成为无人问津的垃圾/ 所有的健身设施/都朝着死亡那边/ 巨额投资的方向/ 已经无法更改/人们继续比赛/深呼吸 跳跃 活动肌肉/仰卧起坐 球一个个飞向/质量暧昧的天空/为了活得更长久. 于坚, 「350」, 『只有大海苍茫如幕』, 长征文出版社, 2006. 于坚의 BLOG, <http://blog.sina.com.cn/yujian> 참조.

섰다.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며 “좀 더 오래 살고”자 애를 쓴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러니인가. 그러나 그것은 과장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화학제품이 섞인 세제를 쓰면서 오염된 강물을 원망하고 우리가 마시는 물의 수질을 걱정한다. 정부가 세워놓은 편의시설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듯이 보이지만 “운동기구”가 향해 있는 곳은 “죽음”, “거액의 투자”일 뿐이다. 시는 이러한 모순된 현실을 대비시킨다. 2000년대 중반 위젠의 창작을 보면 그 비판적 시각이 더욱 날카로워진 모습이다.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개발독재의 부조리를 다룬 다수의 시에 특정한 제목을 붙이지 않고 일련번호로 대체한 것은 “아마도 제목 없는 시 형식을 통하여 隱現의 정치적인 妙를 노렸”⁴²⁾던 것으로 보인다.

위젠, 화하이 등 시인의 생태시가 보여주는 비판적 시각이나 현실문제에 대한 개입의 의지는 중국 당대시 창작에서 결코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특징으로 충분히 되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 화하이는 “최근 시단에 많은 기치가 난립하고 ‘주의’식 구호가 여기저기서 출현하고 있다. 반면에 제대로 된 시 텍스트는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비판하면서 생태시의 발전 역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창작과 작품 수집, 평론 작업에 임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생태문학이 우리 세대에게 의미 있는 정신적 탐색의 궤도가 될 것”⁴³⁾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중국의 생태시가 참여문학으로서 실제적 사회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시인들에게서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담론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 중국의 ‘생태시’가 공허한 명명이 아닌 현실문제와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문학적 사유로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모색

생태시는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에 저항하는 글쓰기이며 동시에 생태파괴의 근본 원인을 탐색하는 문학적 고찰이다. 따라서 생태시는 궁극적으로 인류문명의 발전,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이성과 도덕, 생명의 의미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다가가고자 한다.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현재의 환경문제는 ‘인간 중심’의 세계 이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결국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로 이어져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인식되며, 이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생태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의 맹점에 주목한다.

강철 열차 관성의 열차는/ 정해진 완벽한 방향을 향해/ 곧장 내달린다 별빛과 폴포기름/ 모두 갈아 뭉개며/ 한밤 새들의 당혹스러움과/ 산의 침묵/ 단 한 번 원망한 적이 없는/ 무고한 곤충들마저도// 짙은 밤빛 속 그는 울부짖는 것이다// 당신들이 곧 세계이기에/ 세계는 곧 당신들이기에/ (중략) 나와 나무와 짐승들은 그저 세상의 다른 한 편에 설 수밖에⁴⁴⁾

42) 백정숙·김용운, 「于堅 詩에 나타난 雲南時空의 변화」, 『中國學』, 第55輯, 2016.06, p.194.

43) 華海, 「關於生態詩歌的對話之二」, 華海生態的博客, <http://blog.sina.com.cn/huahaishengtai>, 2008.08.11.

“강철 열차”-“육망호”는 얼마나 무수한 “별빛”과 “폴포기”, “새들의 당혹스러움”, “무고한 곤충”을 갈아 뭉개었을까. 개혁개방 직후 중국사회는 경제성장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제대로 먹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자하는 의지 하나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고된 노동을 감수하였다. 삶의 질 향상을 꿈꾸었던 젊은 세대나 과거의 극심한 가난과 희생의 시대를 기억하는 기성세대에게나 ‘경제성장’은 틀림없이 중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정해진 완벽한 방향”이었다. “육망호” 열차는 그렇게 아찔한 속도로 30년을 넘게 달려왔고, 이제 시는 다른 관점에서 “완벽”하다고 믿었던 “방향”을 바라본다. ‘세계는 곧 당신들의 것인가?’라는 물음은 부분별한 개발과 발전의 바탕이 되었던 인간중심적 사고에 대한 질문이다.

인간중심적 사고에 대한 반성적 견해는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지향하는 ‘생명 중심적 관점’으로 대표된다. 이는 생태시의 중요한 주제의식 가운데 하나로 중국의 생태시 창작에서도 관찰된다.

어제 밤 윈난 고원에서/ 나는 커다란 나무들과 함께했다/ 우리는 결코 서로 걸맞는 사이는 아니다/ 나는 이 세상 표면 위의 식물에 기대어 있는 것일 뿐/ 언제고 한 줄기 바람에 날려가 버릴지 모르지만/ 그들은 피와 살을 나눈/ 대지의 손이기에/ 우리는 알알이 금빛 포도가/ 검은 잎사귀를 떠나 바구니 같은 산골짜기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주 가까이 붙어서/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관찰했다/ 한밤이 되어서야 나는 나무를 떠나 집으로 가서 잠을 잤다/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을 잘 잤다/ 날이 새고 나는 고원이 쭉대밭이 되었음을 알았다/ 나무들은 흠뻑 두들겨 맞은 타조처럼/ 온통 깃털을 떨구었고 가지가 부러져 있었다⁴⁵⁾

시인에게 나무는 결코 인간과 “걸맞는 사이가 아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나 나무는 “대지와 피와 살을 나눈” 자연의 일부로, 보다 높은 가치의 존재로 묘사된다. “인간을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체보다 우위에 두지 않는 것”은 ‘생명 중심적 관점’의 핵심 내용이다. “모든 생명은 상호의존적 체계의 일부이며, 인간은 모든 다른 생명체와 똑같은 의미와 조건에서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⁴⁶⁾ 반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나무는 인간에게 꼭 필요

44) 钢铁的车 惯性的车/ 朝着那既定的完美方向/ 一路狂奔 辗过所有的/ 星光和青草/ 辗过夜鸟的惶恐/ 山峰的沉默/ 甚至辗过从来没有恩怨的/ 那些无辜昆虫/ 在浓黑的夜色中 它呼叫/ 因为你们就是世界/ 世界就是你们/ (중략)我和树木、鸟兽们只能站在/ 世界的另一侧面, 華海, 「벼랑 끝의 붉은 등불(懸崖上的紅燈)」, 『華海生態詩抄』, 作家出版社, 2006, 華海生態의 博客, <http://blog.sina.com.cn/huahaihengtai>, 2008.06.29.

45) 昨夜在云南高原/ 我和一群大树呆在一起/ 我们并不相称 我们看着一棵棵金的葡萄/ 脱离黑色的叶子 落进篮子般的山谷/ 我们靠得很近 观察世界/ 有着同样心情/ 天亮后我发现高原已被踩得稀烂/ 大树们像一群遭到毒打的鸵鸟/ 羽毛掉下了很多 树枝也有伤残. 于堅, 「어제 밤 내가 떠난 뒤에(昨夜當我離去之後)」, 『于堅의詩』, pp.78-79.

46) 폴 테일러(Paul Taylor)의 『자연에 대한 존중(Report for nature)』에 의하면 자연에 대한 ‘생명 중심적 관점’은 “첫째로 인간은 모든 다른 생명체와 똑같은 의미와 조건에서 지구의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생각된다. 둘째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종은 상호의존적인 체계의 일부라는 것이다. 셋째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방식으로 선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밖의 다른 생명체들보다 더 우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조제프 R. 데자르맹, 『환경윤리』, 연암서가, 2017,

한 목적을 제공하는 좋은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러한 ‘도구적 의미’에서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시가 묘사하고 있는 “어제 밤 내가 떠난 뒤”의 이 상황은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 인류는 오랫동안 자연을 이러한 ‘도구적 의미’에서 해석해왔고, 자연환경개발을 기반으로 한 성장의 근거가 되었다. 1990년 위젠이 「어제 밤 내가 떠난 뒤에」를 창작할 당시 그가 ‘생태윤리’ 철학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그의 시는 생명 그 자체의 ‘본래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이후에 그는 “곤충을 자유로운 생존 권리와 미학체계를 가진 영혼의 집체라고 보는 입장은 현대 중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가치관과 완전히 위배된다. 곤충, 야생동물, 식물의 세계에 대한 취사의 기준은 인간에게 유용한가 유해한가,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약으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일뿐”⁴⁷⁾이라며 자신의 생태주의적 시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마도 위젠은 “유년의 철학 속에서 자연스럽게 땅과 하늘이 유구하다고 굳게 믿었다”, “죽음의 질서 속에서 내 유일한 바램은/ 네가 당연히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야 하고 더욱 성대해져야 하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⁴⁸⁾이라 노래했듯이 훨씬 오래 전부터 “원난의 여러 민족전통사상에서 얻은 양분을 바탕으로 자연의 신성함이 그의 정신과 시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⁴⁹⁾, 본능적으로 이러한 철학을 자기화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새들의 조심스런 걸음, 교외 어느 새벽에/ 들어본 적이 있는 소리 열 몇 마리 작은 새가 시멘트 길 위에// 날개를 접고 요리조리/ 바람 한 점도 일지 않는/ 가벼운 걸음에/ 나는 더욱 조심히 걸었네 그 작은 발걸음도/ 내 뒤를 가던 작은 새에게 들키고 말아/ 한순간 날개를 펴고 날아가버렸네⁵⁰⁾

푸젠성(福建省)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 셴허(沈河)는 ‘청위안시인그룹’의 일원으로 생태주의적 성격이 선명한 다수의 시를 발표한 바 있다. 시가 보여주는 이 새벽의 사소한 경험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도시에서 새들이 마음 편히 발 디딜 수 있는 땅은 얼마나 될까. “시멘트 길 위에” 새들의 걸음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조심스런 걸음으로 다가가도 새들은 금세 알아차리고 멀리 날아가 버린다. 셴허의 시가 보여주는 인간과 자연의 교감, 공존의 지향은 생태시가 구현하고자 하는 근원적 성찰의 바탕이 된다.

이 밖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황리하이(黃禮孩) 시가 주목할 만하다.

p.21 참조.

47) 于堅, 『于堅集』, p.45.

48) 在童年的哲学中 我自然地迷信地久天长/ 在死亡的秩序中 这是我惟一心甘情愿的/ 你当然要落在最后 你是那更盛大的 你是那安置一切的, 于堅, 「덴즈를 애도하며(哀滇池)」, 『于堅的詩』, pp.106-112.

49) 汪樹東, 「爲大地而:歌生態意識與于堅詩歌」, 『河北師範大學學報』2007年 第30卷 第6期, p.76.

50) 小鸟走得轻, 我在郊外的清晨/ 听见了. 在水泥路上, 十几只小鸟// 把翅膀收起来, 来回走动/ 轻轻地走/ 扇不出几缕轻风/ 我走得更轻. 如此轻的脚步// 还是被一只走在后面的小鸟听见/ 一下子把翅膀发回天空, 沈河, 「새들은 조심스레 걷는다(小鳥走得輕)」, 『詩刊』, 2006年 第9期.

나무의 시들은/ 별의 유해와 같아서/ 저 산의 꽃들은/ 고요히 시들어가는 것으로 대지를 사랑하고/ 저 산의 열매는/ 사랑의 허락을 구하여/ 바람 속에 익고 또 떨어진다/ 낮은 곳 작은 벌레가/ 얇은 잎사귀 틈에 꿈을 꾸다/ 쉬, 깨우지 말아요/ 우리는 그들보다도 살아가는 법을 모르고 있으니⁵¹⁾

환경오염에 대한 고발과 경고에 치력하는 시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황리하이의 시는 확실히 중국 생태시의 또 다른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그는 이름 없는 ‘꽃송이’나 ‘벌레’와 같이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작은 생명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 매우 감성적인 표현 방식으로 자연에 대한 윤리적 사고를 이끌어낸다. 절규나 울분 대신 속삭임으로 인간의 감수를 자극하고 가슴 깊이 내재되어 있는 생명의 존엄을 일깨우는 것이다. 긴 설명 없이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생명은 그것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그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명 중심적 관점’은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고와 행동을 유도하고 나아가 우리 스스로 하나의 생명체로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무엇을 신뢰해야하는가/ 이곳에서 인간은/ 금세 도시의 소음 속에 묻히고 만다/ 성대한 광장/ 그는 그것을 목장으로 바꿔놓고 싶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이 오후/ 그의 분노는 여전히 다정하기만 하다/ 보잘 것 없는 한 인간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오후 그저 앞으로 걷는 것만 생각하고 싶지만/ 마음은 자꾸 건너편 일을 향해 간다⁵²⁾

황리하이의 「거리(街道)」는 도시의 환경위기를 인간 소외의 문제로 확장시켜 간다. 공업화 도시화의 과정은 곧 인간과 자연의 분리의 과정이었다. 자연에서 떨어져 나온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흔히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게 된다. 삶은 때로 무의미한 노동으로 채워지고 사람이 자본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기계화의 운명 속에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어떠한 기능(성공, 권위, 빈부, 계층)이 인간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자유 생명체로서 인간의 존재 의미는 “금세 도시의 소음 속에 묻히고”만다. 이러한 허무감 속에서 “인간”은 과연 “무엇을 신뢰해야하는가”라는 정신적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성대한 광장”이 내포하는 가치지향은 “목장”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 생태환경의 문제는 현실과도 직결된 문제 이기에 자각과 실천 사이의 간극이 클 수밖에 없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자꾸만 건너편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시인은 “분노”하지만 마음껏 표출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다정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시가 내포하고 있는 주제의식이 소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내적 갈등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

51) 一棵树的枯萎/ 像星星的遗骸/ 那山上的花朵/ 以枯萎的沉默爱着大地/ 那山上的果实/ 得到爱的允诺/ 在风中熟落/ 低处的小昆虫/ 在细叶间做梦/ 嘘, 不要让它们醒来/ 我们不比它们更懂得去生活. 黄禮孩, 「우리는 그들보다도 살아가는 법을 모른다(我們不比它們更懂得去生活)」, 『抵押出去的激情』, 山東文藝出版社, 2016, p.51.

52) 该去信赖什么事物/ 一个人在这里/ 很快被城市的喧嚣淹没/ 他想把盛大的广场/ 变成牧场/ 可是他不能, 在这个下午/ 他的愤怒, 仍显得多情/ 一个微不足道的人/ 隔着一条街/ 在这个下午, 只管朝前走/ 心向着对面的事情. 黄禮孩, 「거리(街道)」, 『抵押出去的激情』, p.104.

올리게 하고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환경문제는 곧 인간의 문제이며,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나온 자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자각에 이르게 한다.

십년 전 나는 처음으로 그를 보았다 남방/ 붉은 高原의 고장 옛 쿤밍의 오후/ 고요한 시간
비둘기와 평범한 사람들의 시절/ 혁명으로부터 벗어난 계급 간의 투쟁으로부터 벗어났던/ (중략) 대략 1분 동안 온 거리에 오직 그만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비범한 기상에도 나도 모르게 멈춰 섰을 때 모든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그를 응시하게 되었다// 목재와 전봇대 사이 유일한 한 그루 나무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내 영혼이 빠져나가고 한 마디 말이 내 감각 기관에서 부활하고 있음을/ 아 이것이 종려나무였지⁵³⁾

위젠의 「사건, 종려나무의 죽음(事件:棕櫚之死)」은 도시의 삶에서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얼마나 ‘소외’되었는가를 확인하게 한다. 매일 지나다니는 거리 “종려나무”는 십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아무도 그를 인식하지 못했다. 물을 주는 이 하나 없어도 그는 생명력을 지키고 있었다. “목재와 전봇대 사이”에서 잊혀져 있던 그를 발견하는 순간, 시인은 “십년 전” 그의 모습을 떠올린다. 여기에서 시는 자연스럽게 위젠의 1989년작 「햇빛 아래 종려나무(陽光下的棕櫚樹)」와 연결된다. “푸른 돛이 활짝 열리는 곳까지 뻗어 올라”, “하프를 만지듯 그(햇빛)를 향해 다가가는”, “푸른 손가락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영혼을 햇빛처럼 솟아오르게” 했던 “종려나무”⁵⁴⁾. 그러나 이제 “종려나무”는 “쇼핑센터”를 건설하던 날 무참히 “죽음”을 맞이하고, 시는 그 정신적 충격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삶은 얼마나 고독한가. “현대 사회에 진입한 대가는 너무나 크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에어컨 달린 새장 하나씩을 주고 대지와 봄의 버드나무와 여름의 연꽃을 앗아갔다.”⁵⁵⁾는 시인의 자조 섞인 지적처럼 환경문제는 곧 현대사회의 인간의 정신적 소외와 맞닿아 있다. 위젠은 특유의 민감한 시선으로 생태위기를 충격적 “사건”의 한 장면으로 형상화하면서도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생태시의 궁극적 고민과 이상을 전달한다.

5. 중국 생태시 성장의 의미와 가능성 - 결론에 대신하며

이제까지 살펴본 중국의 생태시 창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선명한 비판적 성격과 현실문제에 개입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특히 위젠과 화하이 등 시인은

53) 十年前我初次见它 在南方/ 红色高原上的外省 旧昆明的下午/ 平静的时间 鸽子和庸人的年代/ 远离革命 远离开阶级之间的斗争/ (중략) 大约一分钟 整个街区 只有它处于光辉之中/ 气象非凡 我不由自主地 暂停 万念俱灰 只把它凝视/ 木料和电线杆中惟一的一棵树 明白无误/ 一刹那我灵魂出窍 一个词在我的 感官中复活/ 哦 这是一株棕榈. 于堅, 「사건: 종려나무의 죽음(事件:棕櫚之死)」, 『于堅의詩』, p.332.

54) 直到整个蓝色的圆顶 都被撑开/, 像是触到竖琴 修长的手指/ 抚摩我/ 使我的灵魂像阳光一样上升, 于堅, 「햇빛 아래 종려나무(陽光下的棕櫚樹)」, 『于堅의詩』, p.32.

55) 于堅, 『于堅集』, 雲南人民出版社, 2004, p.84.

생태시 창작을 통해 독자의 비판의식을 유도하고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당면 현실에 대한 문학의 비판적 참여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것은 중국의 생태시가 사회적 주문에 맞춰 단기적 공리 축진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문제와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문학적 사유로 성장할 가능성을 발견하게 한다. 앞서 거론한 바 있듯이 중국문단에서 당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는 것은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다. 문화대혁명이 종결되기 전까지 시는 정치이념과 문학정책의 주도 아래 성장하면서 작가 개인의 주체의식과 정서를 표현할 자유를 억압받아야 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80년대 이후 중국의 당대시는 ‘개인적 글쓰기’를 표방하며 다양한 문학적 실험과 탐색을 계속해왔다. ‘개인적 글쓰기’의 추구는 어떤 면에서 일상생활의 무절제한 연장이나, 개체의 욕망, 신음으로 표출되어 보편적 인간의 정신 지향과는 소원해지고 말았으며, 시의 사회적 참여 역할은 크게 약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90년대 후반 인터넷과 대중매체의 발달은 시와 일상의 거리를 더욱 멀리 떨어뜨려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태시 창작이 보여주고 있는 비판적 참여의식은 ‘환경위기에 대한 문학의 대응’으로서 문학창작이 개인적 발언에서 공공화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생태시의 비판적 특성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것이 “일부 불량한 현상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회 비판에 머물러 있으며 문화적 요인에 대한 내적 고민이 결핍되어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생태의식이 점차 강화되고 환경문제에 대한 조치도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만족할만한 성취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⁵⁶⁾는 것이다. 이는 생태시 창작이 어떤 면에서 사회비판적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한 반감의 표현일 것이다.

반면에 비교적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생태시는 처음부터 “환경오염의 원인들에 대한 비판적 대응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상생의 출구를 찾아나가는 현실참여의 문학”으로, “자연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동시대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치 및 사회의 부조리로부터 생태과 괴의 원인들을 추적해나가는 시인들의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또한 “시인들의 저항의식은 독자의 자연관과 현실관을 변화시키려는 교육적 의도를 노출시켰다.”, “독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려는 생태시의 교육적 행위는 시인과 독자 간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전제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의 비판의식과 개혁의지를 사회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⁵⁷⁾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중국의 생태시는 과연 실제 오늘날 시의 고립된 상황을 타개하고 참여문학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계기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확신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생태시의 기초는 객관적 현실이며, 사회적 문제에서 출발한 만큼 본질적으로 생태의식과 함께 문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⁵⁸⁾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의 생태시 창작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식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56) 田皓, 「20世紀80年代以來中國生態詩歌發展論」, 『湘潭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7年 第2期, p.88.

57) 송용구, 「독일의 생태시에 나타난 생명의식과 저항의식의 상관성」,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2006 참조.

58) 丘志武·样慧, 「當代生態詩歌的現實主義視覺考察」, 『大連民族大學學報』, 第18卷 第2期, 2016, pp.155-156.

한편으로 몇몇 시는 중국내의 ‘환경과 개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근본적으로 생태시의 가치는 “인간과 자연물 사이의 내재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인류와 자연이 조화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인간과 자연 발전에 호혜적 논리를 탐색”⁵⁹⁾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생태주의적 가치의 구현에 있어서 일부 작품들은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진정한 생태문학이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아의 관계와 조화 그리고 그 모든 역사와 합목적 비판에 주목해야할 뿐 아니라 풍부한 예술기제 안에 미적 조형을 더할 줄 알아야 한다.”⁶⁰⁾는 높은 기준에서 본다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나, 적지 않은 작품을 통해서 생태적 위기를 공감하고, 우리의 상황을 돌이켜보는 성찰의 기회를 얻고, 자연과 인간의 건강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관점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이다. 이러한 성과가 여전히 일부 소수의 시인에게서 제한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새로운 문학담론으로 등장한 생태시 창작이 문학의 다양성을 위한 노력이자, 이 시대 중국사회에서 의미 있는 정신적 탐색으로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59) 王岳川, 「生態文學與生態批評的當代價值」, 『北京大學學報』, 第46卷 第2期, 2009, p.136.

60) 吳秀明, 「我們需要什麼樣的生態文學」, 『理論與創作』, 2006年 第1期, pp.4-8.

【참고문헌】

- 주디스 사피로, 『중국의 환경 문제』, 아연출판부, 2017.
- 조제프 R. 데자르댕, 『환경윤리』, 연암서가, 2017.
- 송용구, 「독일의 생태시에 나타난 생명의식과 저항의식의 상관성」, 한국연구재단, 2006.
- _____, 『생태시와 생태사상』, 현대서정사, 2016.
- 백정숙·김용운, 「于堅 詩에 나타난 雲南時空의 변화」, 『中國學』, 第55輯, 2016.06.
- 곽배성, 「환경선진국 변신을 꿈꾸는 중국 - 중국의 환경정책변화 및 대응방향」, 『POSRI이슈리포트』, 포스코경영연구원, 2016.
- 홍문표, 「한국 생태시의 과제」, 『한국문예비평연구』, 8호, 2001.
- 원동욱, 「중국 환경문제에 대한 재인식 -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딜레마」, 『환경정책연구』, 5권 1호, 2006.
- 전형권, 『중국의 환경운동과 거버넌스』, 한국학술정보, 2010.
- 于 堅, 『于堅의詩』, 人民文學出版社, 2006.
- _____, 『于堅集』, 雲南人民出版社, 2004.
- _____, 『一枚穿過天空的釘子』, 雲南人民出版社, 2004.
- 翟永明, 『终于使我周转不灵』, 江苏文艺出版社, 2000.
- 黃禮孩, 『抵押出去的激情』, 山東文藝出版社, 2016.
- 李松濤, 『拒絕末日』, 春風文藝出版社, 1996.
- 吳景明, 『生態批評視野中的20世紀中國文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4.
- 吳景明, 「中國當代生態詩歌簡論」, 『文藝爭鳴』, 2007年 第4期.
- 吳景明, 「近二十年中國生態文學發展概觀」, 『山東理工大學學報』, 第23卷 第2期, 2007.03.
- 華 海, 「生態詩歌的產生和發展現況」, 『長城』, 2009年 第2期.
- 田 皓, 「20世紀80年代以來中國生態詩歌發展論」, 『湘潭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7年 第2期.
- 陳仲義, 「生態詩歌寫作的現狀與問題」, 『文學與文化』, 2010年 第2期.
- 丘志武·样 慧, 「當代生態詩歌的現實主義視覺考察」, 『大連民族大學學報』, 2016年 第18卷 第2期.
- 王岳川, 「生態文學與生態批評的當代價值」, 『北京大學學報』, 2009年 第46卷 第2期.
- 王 諾, 「保護海蜃的小海」, 『讀書』, 2006年 6期.
- 汪樹東, 「爲大地而歌生態意識與于堅詩歌」, 『河北師範大學學報』, 2007年 第30卷 第6期.
- 吳秀明, 「我們需要什么樣的生態文學」, 『理論與創作』, 2006年 第1期.
- 華海生態的博客, <http://blog.sina.com.cn/huahaishengtai>.
- 于堅的BLOG, <http://blog.sina.com.cn/yujian>.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生态诗歌, 环境与文学, 中国生态诗歌, 于坚, 华海		
	영문	Ecological poetry, Environment and Literature, Chinese Ecological poetry, Yujian, Huahai		
<div>Eco-crisis and Reflection of Literature</div> <div>: The Growth and Meaning of the Chinese Ecological poetry</div> <div>Baek, Joeng-Suk</div> <div><p>This article discusses the development, background and current situation of ecological poetry in China. Since twenty-first Century, China is facing the most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Environmental problems are considered to be a threat to the future of mankind, and the voices of introspection and critiqu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blind consumption are also gradually expanding. At present, ecological poetry has become a new topic in Chinese literary circles. It reflects the change in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problems.</p><p>Through the study of "ecological poetry", can look forward to understanding the critical consciousness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nd the new aspi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nature.</p></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백정숙 / 白貞淑 / Baek, Jeong-Suk		
	소 속	동아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학과		
	Em@il	baekjs@dau.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8월 15일	심 사 일	2018년 08월 25일
	수 정 일	2018년 09월 15일	게재확정일	2018년 09월 22일